

A Comparative Analysis of Orientalism Expressed in High Fashion and Street Fashion

Chung-Mi Lee* · Chan-Ju Kim

Incheon University* · Incheon University

Due to post modernism, the multilateralism in culture is stressed more than ever, and by the end of 20th century, ethnic look has loomed in fashion. Orientalism in particular emerges from the background whe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develop and bring about changes in mass media. It is also related to the Zen style, which is combination of the minimalism from the Western world and the spatial beauty of the Eastern world and which arises from the impact of the return of Hong Kong to China. Street fashion has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fashion as it has gain popularity among the public in 1990.

This study compares orientalism in high fashion and street fashion. For theoretical study,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orientalism,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ashion have been evaluated. For empirical study, fashion magazines that represent both high fashion and street fashion are selected, and pictures with oriental fashion are chosen and evaluated by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in terms of period, region and design elements.

First, the main period of showing orientalism in high fashion starts from 1996. In the beginning, the focus is on the materials, but the focus is extended to forms and details as time goes by. With time, materials, forms, details, patterns, and accessories are widely

used to express orientalism. In street fashion, orientalism is somewhat less showed than in high fashion; however, it is more frequent in 1999 and 2000 than other years, and the focus is on patterns and forms.

Seco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orientalism are that of China and Japan.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focus is on Chinese materials, Japanese details, Korean patterns and details, Southeast Asian forms, and Southwest Asian accessories. Street fashion is usually characterized by Chinese and Japanese style, as it is for high fashion. Chinese and Japanese patterns are frequent whereas forms and patterns are that of Southeast Asia. However, Korean and Indian style is not found at all in street fashion.

Third, design elements used in high fashion are materials, forms and details, whereas patterns and forms in street fashion. This difference arises because the general public puts more importance in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aspect of clothing.

Design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why Korean style is less used than that of Chinese and Japanese to express orientalism, and such attention should serve as the basis for chances for fashion companies to develop unique Korean materials, forms, patterns, details and accessories.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표현양식 비교

이청미* · 김찬주

인천대학교* · 인천대학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문화의 다원성이 강조되면서 20세기 후반에는 에스닉룩이 패션의 큰 주제로 부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시대적 배경과 홍콩의 중국반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서양인들이 동양의 철학과 종교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먼저 하이 패션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에 들어 거리의 복식 스타일이 창의성과 자유로움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곧 대중의 패션트렌드 수용을 반영하는 중요한 패션정보원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패션에서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수용하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의 경향을 시대별로, 지역별로, 디자인 요소별로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을 소개하는 패션정보지와 패션잡지들을 선정하고 1996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표현된 사진자료를 선정기준에 따라 추출하였는데, 하이 패션 585개, 스트리트패션 110개, 총 695개의 자료를 최종자료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연도별, 지역별, 디자인 요소별로 유목을 선정,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이 패션에서는 1996년을 기점으로 초반에는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소재가 주로 이용되고 점차 형태와 디테일로 확대되었으며, 시기가 지날 수록 소재, 형태, 문양, 디테일, 장신구가 골고루 폭넓게 이용되었다.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하이 패션에 비해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는 자료의 빈도는 적었고,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비교적 많은 양을

보였으며 문양과 형태가 주로 이용되었다.

둘째,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오리엔탈리즘의 표현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중국은 소재, 일본은 디테일, 한국은 문양과 디테일, 동남아시아는 형태, 서남아시아는 장신구가 주로 적용되었다. 스트리트 패션 역시 하이 패션과 공통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복식을 이용하여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한 빈도가 높았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 문양의 활용도가 높았고, 동남아시아의 형태와 문양도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를 적용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디자인 요소별 차이를 살펴보면 하이 패션은 소재와 형태,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았고, 스트리트 패션은 문양과 형태를 적용한 의복들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하이 패션을 수용하는 상류층과 비교해볼 때, 일반 대중들은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이 다르고, 활동과 관리면에서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실크 같은 소재와 과도한 실루엣의 의복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양의 문화를 상징하는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는데 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적인 정취가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모두에서 낮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디자이너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내 패션 업체에서는 목표 계층을 달리하여 각 계층별로 적합한 소재, 형태, 문양, 디테일, 장신구의 여러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